

신앙생활, 본분이자 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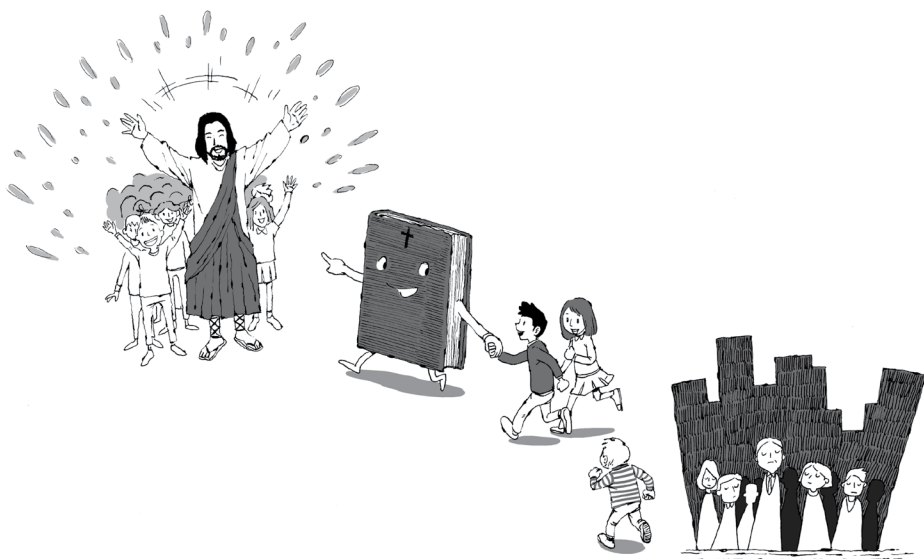
막 12:28~34, 뵤전 2:9~12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192장 (내가 죽어아)

오늘 배울



1.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2.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이전에 은혜이자 특권임을 압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엡 2:3~5)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뵤전 2:9)



을 이해하기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귀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실제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자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Therefore,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1Co 10:31)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②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① ‘말씀을 이해하기’를 잘 읽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의무이기 이전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 왔습니까? (진로, 교회 생활, 개인 생활)

갈등 내용	
나의 반응	
대처 방법	

3

앞으로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다짐과 실천을 위한 계획, 그리고 쫓대 말씀을 적어봅시다.

신앙의 다짐	
실천 계획	
쫓대 말씀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9:10

월

전 12:13

화

사 43:7

↑

롬 14:8

↑

고전 10:31

↑

엡 2:10

↑

벧전 2:9



천막 안의 상인과 낙타

어느 겨울날, 한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다가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된 그는 천막을 펴고 밤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천막 안에 들어가 앉으니 몸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낙타가 문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도무지 추위를 견딜 수 없다며, 머리만이라도 천막 안에 넣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상인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잠시후 낙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주인님, 머리는 따뜻한데 어깨가 시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깨와 앞발만이라도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상인은 언짢았으나 또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려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옆치없는 낙타가 “몸통까지만이라도...” 하며 또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인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막 잠이 들려 하는데, 낙타가 상인을 흔들어 깨우며, “주인님, 발이 시려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라고 엄살을 부렸습니다. 이에 주인은 발까지 들여놓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큼지막하던 천막에 낙타가 들어오니, 상인이 누울 자리마저 없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상인에게 낙타는 오히려 “주인님, 천막이 좁죠? 주인님께서 잠시 밖에 나가 계시면 어떨까요?” 라고 낙타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낙타의 머리를 들여놓도록 허락한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죄 하나를 허용하면 그 죄는 점점 커지다가 결국 내 온 마음과 삶을 점령하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사람은 정말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결코 비유나 허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흙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체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흙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세월이 흐르면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도 아주 과학적입니다. 사람의 갈비뼈는 다른 뼈와 달리 잘라져도 재생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 가장 안성맞춤인 부분이 바로 갈빗대였습니다. 아담은 갈비뼈가 다시 자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현대의 과학이나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을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또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일진대 그 어떤 말씀도 믿지 못할 것이 없고, 또 믿어야 마땅할 것입니다.